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3 Autumn Vol.34



In Schaeffler

06

미래의 가치
Professional, 기업의
핵심적인 역량을 만드는 힘

16

체험 1박 2일
우리가 세플러의
진짜 사나이



For Life

20

세플러 애정촌
천 년의 역사 속으로
떠난 시간여행

30

힐링 가족 캠핑
밤송이가 익어가는
가을 캠핑



To Communicate

40

생생정보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vs 종신보험

50

Schaeffler Focus
연삭 설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획득

발행일 2013년 10월 15일(통권 제34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이범진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인쇄 은성프린팅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표지이야기

이번 '체험 1박 2일'에서는
 전주공장 생산2팀의
 이선택 사원과 이대운 사원이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로
 겁없이 뛰어든 두 젊은이의
 패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04

Cover Story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 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In
 Schaeffler

06

미래의 가치
 Professional,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만드는 힘

08

세플러를 찾아서
 근본에 기본을 더하는
 전천후 세플러



34

꽃중년 프로젝트
 올 가을,
 그루밍족 되어볼까

36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바람을 타고
 가을 하늘을 날다



12

원더풀 베어링
 운전자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한 필수 부품,
 차량용
 볼 스크류(Ball Screw)

14

나의 S 다이어리
 전주공장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손길



38

남편의 자격
 아이와 친구되기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

40

생생정보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vs
 종신보험



To
 Communicate

16

체험 1박 2일
 우리가 세플러의
 진짜 사나이



20

세플러 애정촌
 천 년의 역사 속으로
 떠난 시간여행

22

세플러인 탐구생활
 나를 멘봉시키는 선후배,
 나를 기쁘게 하는 선후배

44

따뜻한 시선
 •한강 환경정화 활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봉사활동



48

새로운 시선
 세플러와 함께 성장할
 젊은 인재들

50

Schaeffler Focus
 연삭 설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획득

24

고민 상담소
 직장 내
 호칭 법부터
 명함 예절까지

26

Happy Birthday
 영화처럼 멋진
 당신의 인생에 쉽표를

For
 Life

30

힐링 가족 캠핑
 밤송이가 익어가는
 가을 캠핑



56

세플러, 나의 인생을 걸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엄마에게

58

Schaeffler Hotline

59

나도 기자다
 <세플러+원>
 신입 사보 주재기자를
 소개합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 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창원공장 1PU사업부 김재욱 상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들 하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한번쯤은 스스로를 다잡아보는 말로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인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묵묵히 유지하면서
열심히, 보다 멀리 보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창원공장 3PU선삭팀
김영록 계장

Team Work

팀워크라는 단어, 우리는 사랑을 살아가며 이 단어를 확으로 많이 듣는다.
팀워크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팀워크의 중요성은 너무나 조직 문화는 만드는 기반이 되기 때문 입니다
조직의 성공요인은 좋은 환경이나 임직원의 능력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보도로 조직이 성공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최선,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둘째, 존경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셋째, 화합력은 리더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허제동이 일사불란해야 한다 오케스트라 의 리허자는
손끝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악기와 장르의 음악을 다루는 단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낸다 예쁜 노래라도 흐름을
맞추지 못한다면 화음의 화음을 만들어 낼수도 없다. 리허자의 역할과
함께 단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를 흔히 다변화 시대라고 한다. 각종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혼자서도 신속하고 쉽게 정보를 얻을수 있다 그러다 보니
조직 내에서 동등한 행동성도 사라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 더 고착화 되는
경향이 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능력만 믿고 홀로서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화합정신
을 배우지 않고,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화합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조직내에서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일이다
혼자라면 빨리가지만 함께가면 빨리간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장 쉽고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조직은 혼자하는 신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경력과 의지가 필요하야
이런 정신이 없다면 자기가 속한 조직이 없어지거나 결국 혼자서만
그 조직에서 위용이 되수밖에 없애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인간행, 어시스트 하는 인간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rofessional

기업의 핵심적인 역량을 만드는 힘

장인정신, 남들에게는 없는 핵심역량을 만들어내다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은 말주변이 없는 코미디언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성실성과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근성이 있다. 〈개그콘서트〉의 '달인'이라는 코너에서 그는 실제로 줄타기를 하고 물구나무를 선 채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기예를 선보이기도 했다. 코미디의 차원을 넘어 진짜 달인이 된 것. 〈정글의 법칙〉에서도 그는 회를 거듭할수록 오지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 최고를 보여주기 위해 스쿠버다이빙은 물론이고 스카이다이빙까지 배우는 열정과 장인정신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어냈다. 기업에서 장인정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핵심역량을 만드는 것.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인정신

LG전자 조성진 사장은 세탁기 분야에서 가히 '달인'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장인정신을 보여준 인물이다. 1989년 노사분규로 인해 LG전자가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활로를 뚫어준 것이 바로 그의 장인정신이었다. 세탁기 사업의 시장점유율이 60%에서 38%까지 떨어졌을 때, 그는 고객의 관점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인공지능 세탁기'로 모든 판도를 바꾸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장인정신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세탁기를 국내 기술화하기 위해 일본어로 된 기술서적들을 읽으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아예 일본에도 없는 새로운 기술인 DD(Direct Drive:세탁통에 모터를 직접 부착하는 방식)모터를 개발

한 것. 이 제품은 국내의 세탁기가 일본 업체를 제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조성진 사장의 세탁기 이야기는 한 우물을 파며 끝없는 연구를 통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의 장인정신이 한 기업의 미래를 개척해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조성진 사장처럼 많은 일본 기업들이 장인정신을 하나의 기업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파나소닉 전공 역시 그 중 하나이다. 파나소닉 전공은 이른바 '꿈의 금형 제조 장치'를 완성시켰는데, 이 금형장치는 설계도 데이터를 입력하면 금형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장치로 레이저를 사용해 정밀오차 5마이크로미터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장인급 제조 장치라고 한다. 이 금형을 이용하면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 같은 정밀부품의 금형 제작기간을 1/3로 줄일 수 있어 제작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제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인 셈이다. 그런데 이 기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장인정신 덕분이었다. 생산 기술 연구원 6명이 무려 13년간 연구한 결과라는 것. 장인급 제조 장치의 탄생 배경에는 장인급 연구가 있었던 셈이다.

장인정신,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장인정신이 만들어낸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술전수다. 과거의 장인기술이란 옆에서 보고 들으며 습득하는 것이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스미토모 금속공업의 이른바 '전임지도원 제도'는 바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며 장인의 기술을 단기간에 전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인기술자가 신입사원과 함께 붙어 다니면서 기술을 지도하도록 하는 이 '전임지도원 제도'는 어느 정도 인건비 부담은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신입사원을 장인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으로 나온 제도인 셈이다. 스미토모 금속공업의 기술전수에 대한 노력은 이밖에도 공장 내 8천 종류의 작업공정을 전산화하고, 작업 매뉴얼을 구축하는가 하면, 사진, 일러스트 등을 이용해 젊은 사원들도 쉽게 복잡한 작업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노력에서도 드러난다.

달라진 경제 환경 속에서 장인정신을 고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무엇보다 장인정신으로 이뤄지는 기술전수가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은 기업으로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그 기업이 가진 핵심적인 역량이나 기술은 그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일 수 있다. 이 역량과 기술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 전수하는 좀 더 현실에 맞는 노력만 갖추어진다면, 장인정신은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미래의 가치로 남을 것이다.



LG전자 주력 제품인 세탁기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조성진 사장. 입사 이후 그가 매달려온 LG세탁기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플러를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에서 만나다 근본에 기본을 더하는 전천후 세플러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 이병준 사원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농업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된 요즘 시대에도 이 말이 전하는 진리는 그대로인 듯하다.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미래에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해 농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업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LS엠트론은 우리나라 농산업의 보석 같은 존재다. 이러한 LS엠트론의 생산현장에서도 역시 세플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트랙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LS엠트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세계적인 농기계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LS엠트론 트랙터는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으로 미국에 1억 불 계약을 수주하는 등 북미시장과 유럽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동력에는 당연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품질의 제품군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재 LS엠트론 트랙터는 각각 그 쓰임새가 다른 소형 트랙터 4개종, 중형 트랙터 3개종, 대형 트랙터 4개종을 비롯하여 이앙기, 관리기 등의 라인업으로 전 세계 농기계 산업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는 고객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왼쪽부터) 세플러코리아 중부 직남영업팀 이용찬 부장,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 이병준 사원, LS엠트론 김승한 차장, LS엠트론 강봉원 과장



트랙터 완성차를 만드는 과정을 한눈에

LS엠트론 전주공장은 부품 조립에서부터 트랙터 완성차를 만드는 과정이 원스톱 생산라인으로 되어 있어 그 과정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다. 이번 공장 견학에는 입사 20년차인 세플러코리아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의 이병준 사원이 함께했다. 베테랑의 눈으로 바라본 또 다른 시선은 과히 예사롭지 않았다. 트랙터의 주요부라 할 수 있는 미션 제작 과정에서부터 엔진 조립과정, 도색, 완성차 조립과정을 순서대로 둘러보는 동안 어느 곳에 세플러의 어떤 베어링이 쓰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실제로 미션 조립과정에서는 이병준 사원이 바로 전날까지 생산하던 바로 그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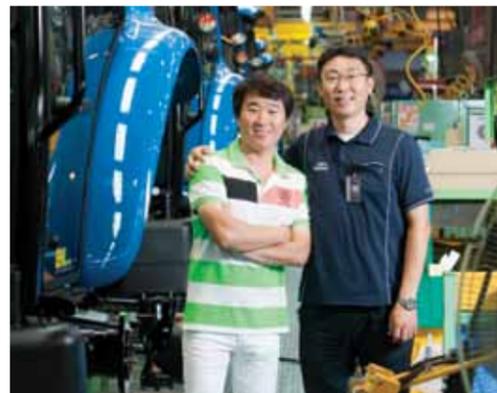
LS엠트론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

LS엠트론 트랙터사업부는 1977년 선진사와 기술제휴로 트랙터 사업을 시작하고, 2003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한 이래 기술 선도 및 고객이 진정 필요로 하는 제품개발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2005년 이전 LS엠트론 전주공장은 연 2만 대 생산능력과 최첨단 조립과 도장라인, 연구소 및 각종 시험설비를 갖춘 국내 최고의 농기계 공장이다. LS엠트론은 생산설비투자 확대,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트랙터 제조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중남미, 동남아 등 전 세계 40여 개국 이상 수출은 물론, 미국 판매법인, 중국 생산법인에 이어 2013년 브라질 생산법인이 가동되고 있다.



어깨동무를 한 두 사람의 모습이 세플러코리아와 LS엔트론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듯하다.



세계적인 기업 이미지에 걸맞는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기반으로 LS엔트론 측의 전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세플러코리아. 오랜 비즈니스를 통해 구축한 파트너 관계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세플러코리아와 LS엔트론의 미래가 밝다.

견학을 마치고 LS엔트론 트랙터사업부 생산관리팀 전정을 직장과 손을 맞잡은 이병준 사원. 두 사람이 맞잡은 손처럼 LS엔트론과 세플러코리아의 파트너십도 굳건히 오래갈 것을 믿는다.



Interview +one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 **이병준** 사원



LS엔트론 트랙터 생산과정에 세플러의 베어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공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차가 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니 마냥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품들이 각각의 업체에서 생산되고, 모여서 여기 있는 완성차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있는 베어링들 중에는 내가 생산한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특히 미션에서 베어링이 많이 쓰이는데, 베어링이 잘못되면 회전체가 잘 돌아가지 않을 테니 앞으로 생산 과정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공정 전반에 대한 설명은 LS엔트론 트랙터사업부 생산관리팀 강봉원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전해들을 수 있었다. "지금 이 라인에서 만드는 트랙터가 전국은 물론 세계를 누빈다. 이곳에서만 연 2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국내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 현지 공장에서도 연 2만 대, 브라질 현지 공장에서도 연 5천여 대를 생산하며, 트랙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잘 정비된 생산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을 이뤄내고 있음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가장 완벽한 파트너, 세플러

세플러의 베어링은 LS엔트론 트랙터 제작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트랙터는 베어링의 이용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차축용 베어링과 미션, 엔진 부분의 클러치와 냉각수펌프가 그것이다. 이 모든 부분의 제작 과정에서 세플러의 베어링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DGBB 60%, TRB 30%, 기타 수입베어링 10% 비율로 트랙터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베어링은 100% 세플러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세플러와 LS엔트론의 돈독한 관계는 15년여 전 'LS전선 군포공장' 시절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비록 지금은 상호가 변경되고 공장이 이전됐지만, 그 신뢰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트랙터의 특성상 험한 사용 환경에서도 최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데, 이렇게 뛰어난 수준의 내구성을 지닌 제품이 바로 세플러의 베어링이기 때문이다.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통해 신뢰가 구축되다 보니, 세플러는 LS엔트론의 연구개발 및 신기종 개발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파트너로서의 참덕궁합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 견학을 마치면서 마지막 공정에서는 완성된 트랙터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완성된 트랙터가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하기까지 수많은 세플러의 제품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뒤를 돌아보는 이병준 사원. 전 세계를 누비게 될 LS엔트론의 트랙터와 그 안의 세플러의 제품을 생각하면 뿌듯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듯 했다.

운전자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위한 필수 부품, 차량용 볼 스크류(Ball Screw)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서는 기존의 기계식 제어 시스템보다 더 정밀한 제어, 더 빠른 차량 반응속도, 한층 적은 기계 작동 충돌 소음을 가능케 하는 전자제어 시스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때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부품이 필요한데, 볼 스크류(Ball Screw)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볼 스크류(Ball Screw)에 숨은 세플러의 기술력을 살펴보자.

모터의 회전운동을 변환시키는 볼 스크류(Ball Screw)

볼 스크류(Ball Screw)는 모터에서 나오는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킨다. 전자제어 유닛에서 회전 신호를 모터에 주면 모터가 일정 값을 회전하게 되고, 상대 부품과 연결되어 볼 스크류(Ball Screw)의 출력을 전달하는 볼 너트가 모터 축에 연결된 볼 스크류(Ball Screw)에 의해 나사 피치에 따른 직선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



쉬운 바퀴 조향에서 자동 주차까지, 조향용 볼 스크류(Ball Screw)

바퀴 구동축은 핸들 축과 기어로 맞물려 있는데, 운전자가 핸들을 회전시키면 조향 축을 통해서 바퀴가 좌, 우로 회전하게 된다. 이때 자동차의 무게 때문에 부품들을 작동시키기 위해 핸들을 회전시키는 힘이 많이 필요한데, 힘이 약한 여성 운전자의 경우 이 힘의 크기를 만족시키기 쉽지가 않다. 여기서 유압 조향장치는 적은 힘으로도 조향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핸들 회전 시 발생하는 힘으로 유압 밸브를 개폐하여 오일펌프에서 생성된 고압의 오일로 조향을 돕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동력부에 오일펌프, 리저버 등 다수의 부품이 필요하므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엔진의 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조향시스템 source: ATZ exta AUDI A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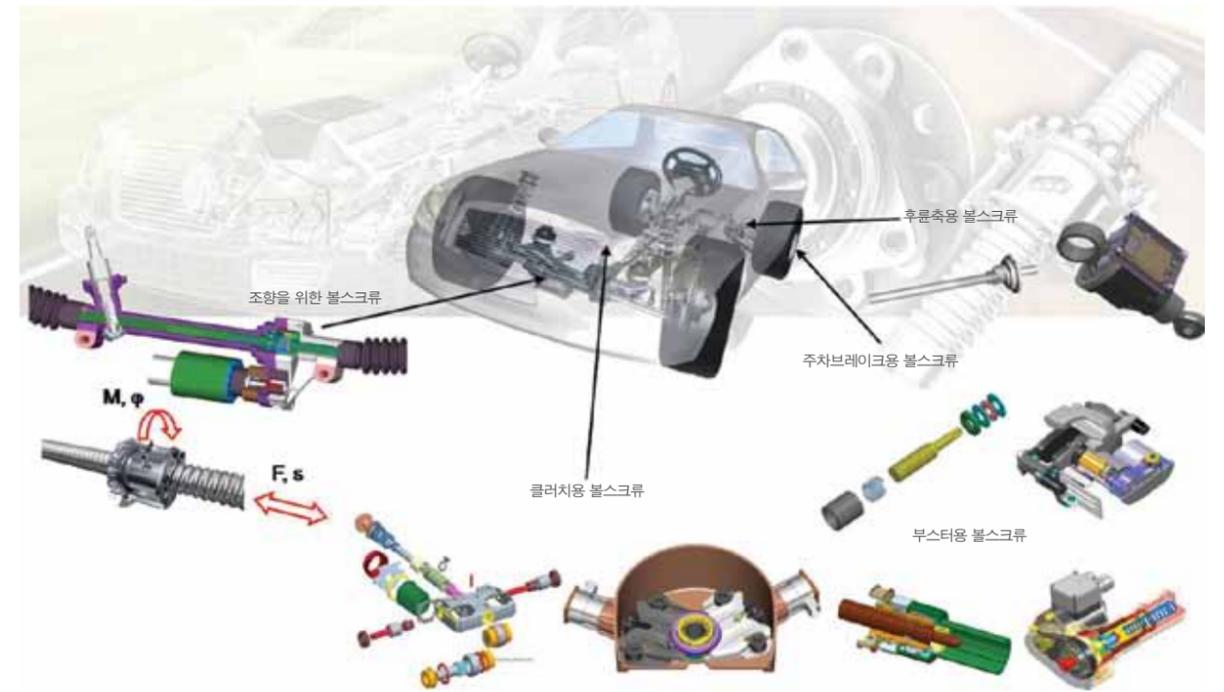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모터와 볼 스크류(Ball Screw)를 사용하여 모든 조향 동력 시스템을 독립시키고 단순화하는 전동 모터식 조향장치(EPS, Electric Power Steering). 핸들 회전 각도를 컴퓨터 전자 제어 장치(ECU)에서 읽어내 모터에 신호를 보내서 볼 스크류(Ball Screw)를 회전시키면 그 회전에 의해 조향 축이 좌, 우로 이동되고 바뀌는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좌, 우 회전하게 된다.

이런 전동 모터식 조향 장치(EPS)는 컴퓨터 전자 제어 장치(ECU)에서 필요한 조향 각을 계산하여 볼 스크류(Ball Screw)의 회전수를 결정하고 조향축의 좌, 우 이동에 의해 바뀌를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차량의 자동 주차도 가능하게 한다.

편안한 승차감을 위한 클러치용 볼 스크류(Ball Screw)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Dual Clutch Transmissions)은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변속 시스템이다. 연료 효율이 높은 수동 변속방식과 편의성이 우수한 자동 변속기의 장점을 결합시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DCT)은 운전자가 원하는 기어 단을 선택하기 위해 제일 처음에 작동되는 액추에이터(Actuator), 그 동력을 변속기 기어 모듈에 전달하는 포크 시스템(Shift Fork System), 해당 기어 동력의 온, 오프를 결정하는 동기화 시스템(Synchronizer System)과 동력의 변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액추에이터에서 포크 시스템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에 볼 스크류(Ball Screw)가 사용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충격음 및 진동으로 승차감이 저하되는 문제가 완화되고, 모터에 의해 볼 스크류(Ball Screw)의 피치를 정확하게 제어 가능하게 되면서 시스템의 반응속도 및 정확도도 증대된다.

이 외에도 운전자가 버튼만 누르면 모터가 볼 스크류를 움직임으로써 피스톤을 누르고 브레이크 패드를 압착하여 바뀌를 고정시키는 주차브레이크에도 볼 스크류(Ball Screw)가 적용되고 있음은 물론, 후륜 축용 볼 스크류(Ball Screw), 부스터용 볼 스크류(Ball Screw) 등이 자동차에서 쓰이고 있다. 이렇듯 세플러의 기술이 적용된 볼 스크류(Ball Screw)는 운전자들의 편리성과 편안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차량용 볼 스크류(Ball Screw) 적용 부품

전주공장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손길

전주공장 설비보전팀 오병곤 사원

입사 21년차인 오병곤 사원의 일과는 조금 특별하다. 공장 내 설비보전, 설비보수, 설비개선을 맡고 있는 설비보전팀 소속의 그는 전주공장과 그의 삶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의 생기 넘치는 하루일과가 궁금하다면, 어서 따라가보자.



AM 7:30

아침 7시 30분, 오병곤 사원의 하루일과는 회사 내의 하우스에서 시작된다. 회사에 들어오는 각종 분재와 화환 등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 마음 아팠던 그가 오직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 하우스에서 꽃과 나무들을 살린 지 벌써 10여 년째다. 그렇게 그의 손길에서 예쁘게 살아난 화분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여져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AM 9:00

하우스 돌보기와 아침 조희, 잠깐의 스트레칭이 끝나면 업무가 시작된다. 그가 맡은 업무는 긴급 발생 시의 대처와 치공구 제작이다. 평소 밀링기계를 이용해 치공구의 홈을 깎는 일을 하다가도 다른 기계에 결함이 발생하는 등의 긴급 상황이 일어나면 바로 달려가, 문제가 생긴 기계가 다시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이렇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달려가는 오병곤 사원 덕분에, 전주공장에서는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PM 2:00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하여 '50분 작업, 10분 휴무'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전주공장. 오병곤 사원도 업무에 지칠 때 실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휴식을 취한다. 입사해서 지금까지 힘이 들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형님, 동생, 동료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잘하자'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PM 8:00

잔업이 없는 날에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오병곤 사원. 집으로 돌아가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8시까지 검도장으로 향한다. 10년 전 평일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던 중, 먼저 입문한 큰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 검도를 시작했다고. 이겼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다시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검도의 마음가짐 '존심'을 통해, 맡은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한다.

검도 외에도 축구, 족구 등 거의 모든 운동을 다 하며 심신에는 활력을, 정성을 다한 돌봄으로 하우스의 식물들에게는 새 생명을, 업무 중 문제가 생긴 기계들에는 새 움직임을 주는 그의 손길은 따뜻하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발생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언행일치되어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오병곤 사원이 한층 더 성숙해질 세플러 가족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친다.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 서바이벌 게임 & ATV 체험

우리가 셰플러의 진짜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진짜 사나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
 강인한 체력과 포기를 모르는 끈기로
 뚝뚝 뚫은 진짜 셰플러인이
 바로 우리라는 이들,
 바로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이다.
 직면하는 위기 속에서도
 늘 오뎅이 같은 정신으로 벌떡 일어서는
 볼베어링 생산3팀 팀원들이
 다시 한번 몸과 정신을 재무장했다.

젊은 패기나! 노련한 기술이나!

서바이벌 게임에 앞서 팀원 모두 옷을 갈아입었다. 불과 몇 개월 전 예비군 훈련 때문에 군복을 입었던 이도 있고 전역한지 20여 년 만에 군복을 입으려니 어색한 이도 있지만, 군복을 입으니 왠지 대한의 멋진 사나이로도 된 듯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팀원들. 새삼 선후배 간의 세월이 느껴지는지 볼베어링 생산3팀은 서로의 지난 군 생활 얘기로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위해 이동했다. 주의사항을 지시 받고 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볼베어링 생산3팀. 아무리 총알 대신 페인트 볼이 발사되는 레저용 총이지만 총은 총.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임하는 팀원들에게 이인석 팀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당부한다. 웃도 갈아입고 총도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다. 바로 팀을 나누는 것. 다들 처음에는 고민하나 싶더니 금세 선배팀과 후배팀으로 나누어 섰다. 이른바 OB(Old Boy)팀 대 YB(Young Boy)팀! 후배들은 젊은 패기로 각오를 다지고 선배들은 노련한 기술로 승리를 외친다.

승리를 위한 우리 팀의 필살기

파이팅! 한껏 함성을 지르고 서바이벌 장으로 입장하는 볼베어링 생산3팀. 눈빛에서부터 남다른 각오가 느껴진다. 각자의 포지션을 찾고 자리를 잡자 드디어 게임이 시작된다. 단 한 발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대로 허공에서 터져버리고 마는 페인트 볼. 다들 정신을 집중하고 표적을 향해 일격을 가해본다. 거침없는 공격으로 OB팀의 정신을 쏙 빼놓는 YB팀. 이에 OB팀은 요리조리 날쌔돌이처럼 공격을 피하며 한바탕의 접전을 벌인다. 잠깐! 타임! 대장들이 각 대원들을 불러 모은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탄탄한 전략이 관건. 때문에 상대를 알고 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볼베어링 생산3팀은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나 자신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바로 그것이다.

강한 정신이 만드는 강한 내일

산업기계, 가전제품과 자동차용 볼베어링, 자동차용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볼베어링 생산3팀에게 강한 정신력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세플러코리아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그들이지만 지금처럼 늘 평탄대로를 달려온 것은 아니다. 위기는 국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찾아왔다. 경기가 악화되자 생산 물량의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른 조업 또한 축소되었다. 특히, 지난 2009년도 일어난 미국발 경제 위기 때에는 보름 이상 동안 조업을 단축해야만 했던 큰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볼베어링 생산3팀은 위기 속에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평소 필요했던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가 회복될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팀원들이 오늘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인석 팀장은 개개인이 위기에 무너지지 않는 강한 정신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

우리가 가지 못할 길은 없다

나이 든 말이 길을 안다 했던가? 산전수전을 겪어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던 선배들의 경험은 곧 OB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서바이벌 장 안에 있던 테이블을 세워 방어벽을 만든 선배들의 번뜩이는 재치에 YB팀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다음을 기약하며 곧바로 ATV를 체험하러 출발했다. 이제 승패는 잊고 모두 신나게 달릴 시간. 산악용 4륜 오토바이는 다들 처음이라 그런지 다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지만 마치 '못한다'는 말은 사전에 없다는 듯 한 번에 쏙쏙 올라탄다. 조작 방법을 간단하게 들은 후 나란히 열맞춰 출발했다.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를 지나니 본격적으로 산악 오프로드가 펼쳐진다. 바로 옆은 낭떠러지인 위험한 산악코스지만 되려 볼베어링 생산3팀은 이제 확실히 감 잡은 듯 더욱 속력을 내본다.

초록 녹음이 그들을 만들고 기암절벽을 따라 흐르는 강물이 팀원들 이마의 땀을 말려준다.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은 서바이벌 게임과 산악 ATV 체험을 통해 팀의 단결력을 다지고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의 슬로건처럼 '세플러코리아의 최강'이 되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을 다시 한번 무장했다. '최강 생산3팀' 파이팅!



OB팀 대장 이광수 사원(좌)과 YB팀 대장 이승수 사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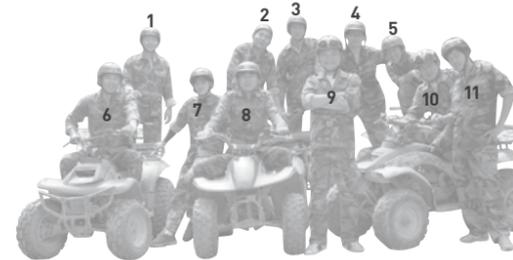


Interview +one

전주공장 볼베어링 생산3팀 이인석 팀장



볼베어링 생산3팀은 팀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층별 간담회와 팀 내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문화 만들기에 노력하여 평소 활기차고 단결력 강한 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션만큼은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팀원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처음 경험하는 서바이벌 게임과 ATV 체험이어서 도통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하니 방법도 빨리 익힐 수 있었고 체험 후에 팀의 단결력도 한층 두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한 정신력과 끈기로 무장한 우리 팀에게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최강 3팀 파이팅!!



- 1 백남승 세트
- 2 이광수 세트
- 3 윤성길 사원
- 4 한동재 사원
- 5 이병준 사원
- 6 이진성 사원
- 7 김민재 사원
- 8 진용진 사원
- 9 이인석 팀장
- 10 전병식 주임
- 11 이승수 사원



천 년의 역사 속으로 떠난 시간여행



높아진 하늘과 쌀쌀해진 바람이 가을임을 짐작케 한다.
 앞만 보고 전력질주하던 걸음이 이따금 쉬어가고,
 험클어진 마음이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것은 이 때문일까?
 오늘 같이 여유로운 날, 천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주에서 세플러 커플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났다.

지붕 없는 노천 박물관

첨성대, 불국사, 오릉까지!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과 다름없다. 가는 곳마다 역사책에서 본 유적지와 유물, 그 옛날 문화의 정수를 담은 사찰, 석불 등 많은 사적지는 찬란했던 그 때의 문화와 예술을 더듬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우리 민족 문화사에 가장 황금시기였다던 통일신라문화의 고고한 향기와 정취가 흔적마다 스며있어 '동양의 그리스'라는 별명에 손색이 없다. 가을 하늘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이곳에서 세플러 커플은 이동하는 내내 감탄을 마다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그곳

신라시대의 천문 관측대인 첨성대에 다다르자 부근에 핀 노오란 유채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손을 흔들며 세플러 커플을 반긴다. 사실 봄 소풍, 수학여행지의 대명사인 경주에 어린 시절 한 번쯤 와본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첨성대가 작게 느껴지고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니 서성민 사원과 전아영 사원은 이미 어른이 된 것일까? 남부직남영업팀의 전아영 사원은 금세 추억여행에 빠진 듯하다.

다음으로 세플러 커플이 찾은 곳은 왕들의 휴식처, 안압지. 이곳은 사적 제18호로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통일신라의 별궁 안에 못을 파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화려한 연회가 펼쳐졌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세플러 커플도 왕족이 된 듯 여유 있는 걸음으로 안압지를 한 바퀴 돌아본다. 그 옛날 만든 정교하고 과학적인 건축물을 보며 과거로 돌아가 선조들과 대화를 나누는 세플러 커플이다.



Couple.

서성민 사원
 창원공장 3PU
 생산관리팀

전아영 사원
 남부직남영업팀

Tip 더욱 재밌게 즐기는 경주 여행



스탬프 투어 대표적인 경주 역사 문화명소 15곳의 스탬프를 모아보세요!

- 스탬프 용지 교부 시간 9:00~18:00
- 스탬프 날인 가능 시간
 - 안압지, 첨성대, 대릉원 9:00~22:00
 - 불국사 10:00~17:00
 - 그 외 9:00~17:30

자전거 투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경주 곳곳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누벼보세요!

- 추천코스 1
- 흥륜사 → 재매정 → 최씨고택 → 계림 → 대릉원 → 첨성대 → 경주 동궁과 월지(舊 임해전지, 안압지) → 분황사 → 황룡사지

- 추천코스 2
- 첨성대 → 반월성 → 능지탑지 → 황복사지 삼층석탑 → 진평왕릉 설총묘 → 보문사지 당간지주 → 신문왕릉 → 사천왕사지 → 선덕여왕릉

문의 :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078

끊임없이 배우는 세플러인

유적지를 돌아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세플러 커플. 알고 보니 모범생이 따로 없다. 현재 창원공장 3PU 생산관리팀에서 WPB, PIN 선식품 수급과 전/후 공정 진도관리를 맡고 있는 서성민 사원은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기 전 해군 대위로 5년간 군 복무를 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살려 그 능력을 세플러코리아에서 십분 발휘하고 있다고. "조직생활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와 소양을 배운 것이 지금의 회사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움이란 어디든 쓰임이 있더라고요." 전아영 사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서성민 사원 못지 않다. 영업지원과 지점의 전반적인 예산관리를 맡고 있는 그녀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사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최근에는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하루가 빠듯하지만 전공을 통해 배운 것들이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기대된다고 한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내일을 준비하는 멋진 세플러 커플이다.

'과거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무얼 할까?'라는 질문에 29살 때로 돌아가 그때 못 다한 호주 여행을 하고 싶다는 서성민 사원과 다시 중학생이 되어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는 전아영 사원. 비록 바람에 불과할지라도 어제의 아쉬움이 오늘을 더 힘차게 달릴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세플러 커플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고 더불어 세플러코리아의 십 년 후, 백 년 후도 함께 고민해본 오늘의 시간여행이 더욱 값지다.

세플러인들에게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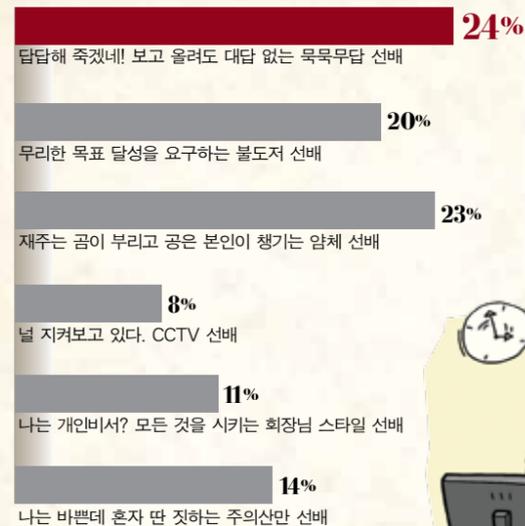
나를 멘봉시키는 선후배, 나를 기쁘게 하는 선후배

집 밖에서 동고동락하는 제2의 가족, 직장 선후배.
각각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업무를 함께 하는 만큼
유쾌한 순간도 많지만 멘탈이 붕괴되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선후배가 나를 멘봉시키고, 또 기쁘게 할까?

설문대상 : 세플러코리아 전직원
설문기간 : 2013년 9월 23일 ~ 10월 2일
총 응답자수 : 133명

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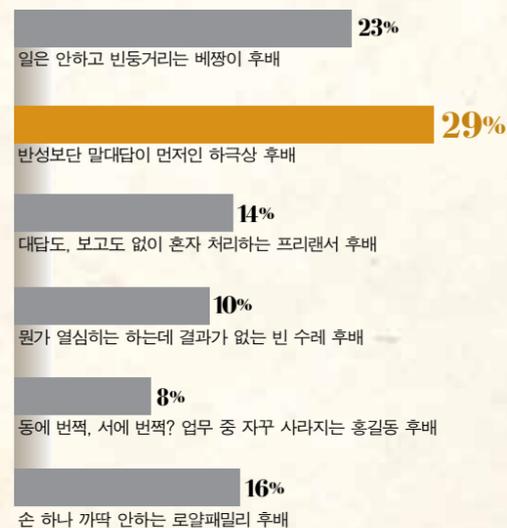
업무 중 가장 나를 지치게 만드는 선후배는 누구인가요?



퇴근을 앞두고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A사원.
점심시간 전에 B과장에게 넘긴 서류가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 퇴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마음은 급한데,
A사원이 보기에 B과장이 오늘 안에
서류를 처리할 것 같지는 않다.
'보고 올려도 대답 없는 선배, 너무 싫어!'
그런데 B과장을 원망하며 출근한 다음날 아침,
B과장이 불러 가보니 전날 A사원이 작성하여
올렸던 보고서에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채 돌려주는 것이 아닌가?
'뒤에서 말없이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다음부터 조금만 빨리요~'

Q2

업무 중 가장 밉상인 후배는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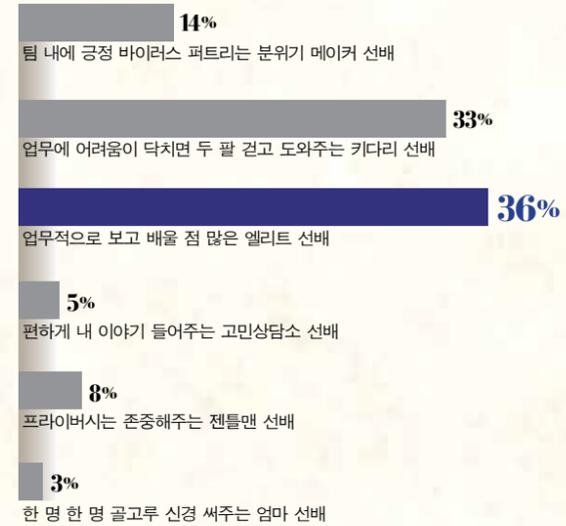


C부장은 오늘도 폭발 직전이다.
신입인 D사원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기에 지적했더니,
꼬박꼬박 말대답을 했던 것이다.
"제가 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혹시 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잠시 휴게실로 나가 숟구치는 화를 잠재우고 돌아온 C부장.
책상 위에 따르면 커피 한 잔과 쪽지 하나가 있다.
'아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커피 드시고 화 푸셔요!
부장님 사랑해요♡'
애교 넘치는 한 줄 글귀에
빙그레 웃음을 짓는 C부장이다.



Q3

내가 존경하는 선배는 어떤 유형인가요?



한마디 농담으로 금세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E대리도 좋고,
무거운 입과 따뜻한 조언으로 우리 팀의 고민상담가를 자처하는 F팀장도 좋지만,
그 누구보다도 G사원의 존경이 되는 사람은 바로 H차장이다.
우리 회사의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H차장은 아무리 바빠도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내고, 오랜 경력이 주는 수완과 노하우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오류도 찾아내어 바로 해결해내기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 꼭 저렇게 되어야지!'
언제나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H차장을,
G사원은 항상 선망의 눈길로 바라본다.



Q4

가장 아끼는 후배는 어떤 유형인가요?



H차장을 롤모델로 삼아 많은 업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처리하려 하는 G사원.
아직 신입이라 비록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남이 보기에 조금은
서툴러 보일지도 모르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회사 내의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한다.
그 어떤 까다로운 업무가 주어져도 남에게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해내려는 그의 노력이 보이기에,
동분서주 분주한 G사원을 보는 H차장의 표정도 흐뭇하다.
"거 참, 사람 하나는 잘 뽑았어!"



교양 있고 예의바른 사원이 되려면 직장 내 호칭 법부터 명함 예절까지

업무 처리능력도 뛰어나고
열의도 대단한 나몰라 사원.
거기에 최대한 예의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하지만,
왠지 직장 선배들은
나몰라 사원을 꺼리는 눈치다.
왜일까?
나몰라 사원의
하루를 들여다보고
그 이유와 해결책을 찾아보자.

압존법*
기본 예의
아니아?



*압존법
주체(A)가 말하는 사람(B)보다 높지만
말을 듣는 사람(C)보다는 낮은 경우,
말을 듣는 사람(C)을 높이기 위해
주체(A)를 높이지 않는 것.

오늘도 열심히 업무 중인
나몰라 사원에게 부장이 다가와 말한다.
“어김없이 열심히 하고 있구만. 박차장은 어디 있나?”
“예! 박차장은 외근 나갔습니다.”
싹싹한 태도로 대답한 나몰라 사원.
그러나 부장은 나몰라 사원을 나무라는데…….

올바른 호칭 법

- 압존법은 가정 내, 군대 내에서만 사용하므로
직장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과장이 사장에게 “최부장님이 지시하신 일이 있습니다.”
- 상사에 대한 존칭은 호칭에만 쓴다.
예) 사장님실(X), 사장실(O)
- 문서에는 상사에 대한 존칭을 생략한다.
예) 사장님 지시(X), 사장 지시(O)
- 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지시를 전달할 때에는
‘님’을 붙인다.
예) 사장님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장님 지시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 동료가 연장자일 경우 ‘님’을 붙이는 것이 좋다
예) 나몰라 님

중요한 거래처 직원을 만나는 자리. 나몰라 사원은 손바닥의 땀을 재킷에 문질러 닦고, 몸을 거의 90도로 숙인 상태에서 먼저 악수를 청한다. 거래처 직원의 맞잡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몇 번 흔드는데, 뒤통수가 따갑다.

눈총 받는
너무
정중한 악수

올바른 악수 습관

- 손을 먼저 내미는 기준 :
여성이 남성에게,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것은 호감의 표시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숙이지 않는다.
- 손에 땀이 많은 사람은 손수건을 준비하고,
바지나 재킷 등 옷에 닦지 않도록 한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사회적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과 악수할 때는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가볍게 잡아 정중함을 나타낸다.
-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은 경망스러워 보일 수 있으므로 2~3초 정도 살짝 손에 힘을 주어 잡는다.



당황스러운
명함 교환의
순간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하는 회의에 참석한 나몰라 사원. 회의 전에 명함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으로 다짜고짜 명함부터 내밀었는데, 거래처 직원이 주는 명함은 어느 손으로 받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한다.

올바른 명함 예절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직원이 고객에게 먼저 건넨다.
- 상대방이 읽기 좋게 명함의 글씨를 상대 방향으로 해서 건넨다.
- 명함을 건네며 본인의 회사명과 이름을 분명하게 말한다.
- 명함은 상대방의 가슴 높이에서 전달한다.
- 명함 교환 시 두 손으로 주고 두 손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동시에 명함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는다.
- 회의 시작 시 테이블 위 자신의 왼편에 받은 명함을 놓고,
여러 명과 회의를 하는 경우 명함을 상대방이 앉은 위치대로 놓는다.



Tip 1.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어떻게 받을까?

- 가는 요령
 1. 용건을 미리 메모해둔 후 전화를 건다.
 2. 상대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넨다.
 3. 용건은 메모를 보면서 말한다.
 4. 상대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5. 먼저 수화기를 놓는다.
- 받는 요령
 1. 벨이 울리면 메모 준비를 한다.
 2. 전화를 받을 때 분명히 소재를 밝힌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플러코리아 00팀 000입니다.”
 3. 용건을 들은 후 다시 한 번 복창해 확인한다.



Tip 2. 업무 잘하는 사람 위에 보고 잘하는 사람 있다!

- 진행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상황이 변할 때는 중간보고를 한다.
- 보고는 제때에 신속하게, 추상적이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
- 보고는 자신에게 지시를 한 당사자에게 하고,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거나 주변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해놓는다.
- 내용을 정리하여 주요사항, 결정사항을 먼저 보고하며,
보고를 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른다.
- 요점을 간략하게 보고하며, 자신의 의견과 보고사항을 구분한다.
- 작은 것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하고, 지레짐작하는 보고는 금물이다.

Happy Birthday To You

영화처럼 멋진 당신의 인생에 심표를

- 연구소 생일자를 위한 생일 선물



많은 이들이 즐기고 있고 직장인들이 즐기기도 가장 쉬운 여가 생활이 바로 영화 관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팍팍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 마음이 더 헛헛해지는 가을에 가슴이 따듯해지는 영화 한 편으로 마음을 채워보자.

눈치 볼 것 없이 영화만 보자고요!

모처럼만의 영화관 나들이. 총각시절에는 그나마 혼자서라도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봤었지만, 결혼을 하고난 뒤로는 쉽게 영화관에 오질 못했거나 가족이 다함께 볼 수 있는 영화만 보다 보니 마음 편히 영화를 본지 오래된 아저씨라는 이름의 그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관에 모였다.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에 편안한 표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참여자(왼쪽 왼쪽부터)

- 연구소 제품기술팀 손창익 연구원(9월 8일)
- 연구소 제품기술팀 권순규 선임연구원(9월 6일)
- 연구소 제품기술팀 추동균 선임연구원(9월 12일)
-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최두호 주임(9월 20일)
-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김정만 사원(9월 17일)

남자들의 영화 보기가 늘 그렇듯 예전에는 영화만 본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영화관에 오는 것이 다반사였다. 연애시절에는 데이트의 기본 코스로 여자친구의 취향에 맞춰 영화를 선택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친구의 손목을 잡아 이마를 노리느라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혼 이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미성년자 관람가 영화를 선택하고 아이들 먹거리 등을 챙기랴 극장에서 소란 피우지 못하게 조심시키랴 바빠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운명을 당연스레 여겨왔다. 하지만 오늘날은 순전히 나만을 위한 영화보기가 가능하니 마음 편히 먹고 영화를 볼 작정이다. 팝콘도 잔뜩, 콜라도 가득. 굳것질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도 오늘은 내려놓을 생각이다.

‘관상’ 한 번 보실래요?

모처럼 찾은 영화관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이들로 북적였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에서부터 데이트를 즐기러 온 연인들까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영화관 앞 로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일행이 있었으니, 바로 세플러코리아 연구소 소속인 다섯 명의 아저씨들이었다. 같은 소속이지만 평소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아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내던 정도의 친분인지라 약간 서먹한 사이였지만 모두 9월에 태어났다는 공통점으로 이렇게 모여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것 또한 인연이라면 인연일 터. 금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영화 이야기로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흥분분해진 마음으로 그들이 고른 영화는 이제 막 개봉을 한 송강호, 김혜수, 이정재 주연의 <관상>. 연기파 배우 송강호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천재 관상가로 분한 사극 영화 <관상>은 흥미진진한 사전 홍보 영상만으로도 개봉 전부터 이미 좋은 평을 받고 있던 터라 ‘만장일치’ 함께 볼 영화로 낙점 되었다.



한바탕 웃다가 울다가, 스트레스를 스크린 너머로

영화를 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영화관 안으로 들어선 다섯 남자. 오늘날만큼은 ‘찌벌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영화에 집중해 본다. 팝콘을 한 움큼 쥐고 먹다 흘려도 툭툭 털어내고, 웃기는 장면에선 온몸으로 박장대소를 해본다. 심각한 부분에서는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주인공과 같이 인상을 찌푸려보기도 한다. 얼마 만에 영화에 집중해보는 건지 몸소 보여주는 듯 영화에 푹 빠져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끝나면 다시금 누군가의 남편과 아버지인 일상으로 돌아갈 터였지만 잠시나마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굳이 영화 관람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연구소 생일자들을 위한 진정한 생일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nterview +one

연구소 제품기술팀 **추동균** 선임연구원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2~3개월에 한 번 정도 영화를 보러 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영화관을 찾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생일에는 늘 가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생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모처럼 재미있는 영화를 마음 편히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생일에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께 안부전화도 잊지 마시고요.



장성철 작 / 캔버스에 아크릴릭 / 2006

화면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붉은색이 심장에 활력을 준다. 활력을 받은 심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막혀 있고 정체되어 있던 찬 기운이 배출됨으로써 오장육부의 균형이 잡힌다. 작품의 아래, 위에 깔린 파란색과 어두운 갈색은 차가운 기운을 올라가게 하고 뜨거운 기운을 내려가게 도와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색채마음연구소(www.multitherapy.com)

밤송이가 익어가는 가을 캠핑

사업관리팀(안산) 최 원 과장 가족



캠핑을 즐기는 무한긍정 가족

캠핑 경력 3년차인 최원 과장 가족은 한 달 평균 1~2번 정도 캠핑을 가는 나른 캠핑 마니아. 최근 들어 주말마다 여러 경조사들이 겹치는 바람에 자주 캠핑을 가지 못하던 차, 한 해의 결실이 열리는 가을을 맞이하여 모처럼 캠핑 장비를 챙기고 나섰다.

자칭 집 짓고 허물기 담당부터 짐꾼을 맡고 있다는 최원 과장과 가족들이 먹을 식사며 간식거리를 챙기는 아내 김미선 씨는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귀찮을 법 한데도 싱글벙글하다. 장소나 식단을 상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겨나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좋다는 최원 과장 부부의 얼굴에서 항상 긍정적인 두 사람의 성격이 묻어난다.

자연 속 체험공간, 용인 청룡캠핑장

최원 과장 가족이 선택한 이번 캠핑 장소는 용인 청룡캠핑장. 수도권과 가까운 용인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캠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넓은 초록 부지와 캠핑장 뒤로 펼쳐진 소나무 숲이 자연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캠핑장 한가운데에 있는 연못에서는 제백 탕고 카약 체험과 뗏목 체험이 가능하고, 아이들을 위한 자라 체험, 철갑상어 체험도 상시 준비되어 있다. 최근에는 가을을 맞이하여 고구마 캐기 체험 역시 실시된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캠핑 장소로서는 아주 적격이다.

최원 과장 역시 가족들과 자연이 주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고



“어떤 것을 빼지?”
5살 호의 서투른 선택을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는 가족들.
캠핑장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하니
보드게임에 재미가 한층 더해진다.

밤나무에 설치된 해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연신 새어나온다. 아직 초록색인 밤송이들이 소담하게 열린 큰 밤나무와 그 옆에 설치된 텐트.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기 위해 최원 과장 가족들이 캠핑을 떠났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체험의 추억을 남겨주기 위하여, 이번 가을 캠핑의 장소로 청룡캠핑장을 선택했다.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고르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가족캠핑

최원 과장과 아내 김미선 씨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어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처음 나간 동창회 자리에서 아내를 만난 최원 과장은 6년 열애 후 결혼에 골인했다. 쑥 자라며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엄마 아빠를 놀라게 하는 8살 아들 율과 호기심과 애교가 많은 말괄량이 공주님 5살 효까지, 항상 웃으며 서로 아끼는 이 네 가족은 캠핑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고.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웃으며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곤충 채집에 나선 최원 과장과 율, 효. 곤충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떠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우리 가족

엄마 아빠와 보드게임도 하고 비눗방울도 불며 신나게 뛰어놀던 율과 효가 가장 재미있었던 가족캠핑의 추억을 끄집어낸다. 어느 여름, 그 날도 역시 네 가족이서 캠핑을 즐기러 온 날이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까지 다 설치해 놓았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타닥타닥 그늘막 텐트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야외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빗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아빠를 지켜보았는데, 아빠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상황이 재미있기도 해서 그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 이야기를 듣고 최원 과장은 너털웃음을 터뜨린다. 사실 그는 그때 비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거나 텐트 속으로 물이 들이칠까 봐 타프 가운데 부분을 내리려, 배수로를 파라 아주 바빴다고.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느라 바빴던 것인데 마냥 재미있게만 생각했더니 속상할 법도 하지만, 최원 과장은 그렇게 말해주는 아이들이 고맙기만 하다. 역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네 가족이다.

자연에서 크는 아이들

한참을 놀고 난 후 엄마 아빠가 간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곤충 채집도 해야 하고, 도토리도 주워야하고……. 천방지축 막내 효는 다람쥐가 먹을 도토리까지 다 주워버릴 거라며 배시시



“엄마, 사랑해요!” 한참을 뛰어놀다 엄마 등에 매미처럼 달라붙은 율. 하루하루 더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율이가, 엄마는 기특하기만 하다.

웃고, 엄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서 웃는다. “캠핑을 시작한 이유가 아이들에게 자연을 자주 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애들이 집에서도 잘 웃지만, 이렇게 밖에 나오면 더 크게 맘 놓고 깔깔 웃는 것이 보기 좋았죠. 옆 텐트 모르는 아이들과도 스스럼없이 같이 노는 것을 보면 자연 속에서 더 활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아이들보다 자신이 더 캠핑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김미선 씨. 아이들은 자연과 뛰어놀 수 있어서 좋고, 최원 과장 부부는 가족끼리 함께하는 것이 가족애를 더 높여주는 것 같아서 좋은 가족캠핑이다.

우리 가족의 캠핑 수칙, 에코 캠핑

최원 과장은 안산공장의 경영관리, 예산관리, 실적분석 등을 맡고 있는 사업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다. 제조원가나 월별 실적을 집계하고 분석하여 독일 본사로 보낼 정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꼼꼼하고 또 꼼꼼해야만 한다. 그런 그가 캠핑에서도 꼼꼼히 따지고 지키는 규칙이 있으니, 바로 ‘에코 캠핑’이다. “캠핑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편히 쉬고 즐기러 왔은 자연인데,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그 자연을 훼손시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도 계속 좋은 환경에서 캠핑을 즐기게 하고 싶다는 최원 과장은 다른 캠퍼들에게도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캠핑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편하게 스스럼없이 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내에게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해주는 남편이 되려고 노력 중이라는 최원 과장. 그는 앞으로도 모두 건강하고,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 가을, 그루밍족 되어볼까

그루밍(Grooming)족은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가리키는 신종어다. 성별을 불문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남자들도 관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아직도 피부관리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듯하다. 올 여름 바캉스에서 지칠 대로 지친 중년 남성들의 피부를 위해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한다.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 기초화장품

남성의 피부는 여성에 비해 수분함량이 적고 흡연과 음주로 탈수현상이 심하므로, 날씨가 건조할수록 오히려 여성들보다 더욱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 스킨, 로션, 에센스 등 기초화장품을 통해 피부의 수분을 지키자.

순수 플랑크톤 PTP와 올리고 미네랄 복합체가 보습을 강화하고, 각종 비타민이 하루 종일 촉촉하게. 비오템 아쿠아 파워 음모. 토너 49,000원 / 로션 50,000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자외선 차단제

주름이 생기고 피부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자외선. 남성들은 자외선에 비교적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피부 속에 축적된 자외선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 성분을 파괴하여 피부 탄력이 여자보다 일찍 떨어진다. 자외선 차단 효과와 보습효과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

함유된 세범 컨트롤 파우더가 번들거림과 피지를 잡아주고, 워터 키팅 시스템으로 보습 성분을 40% 이상 유지 가능.

DTRT 셀프 디펜스 선 프로텍터, 34,000원.



피부 톤 보정을 위한 CC크림

요즘은 남자에게도 깨끗하고 화사한 피부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중요한 미팅이나 사진 촬영을 앞두고 피부 톤을 화사하게 보정해보자. 단, 공알만큼만 사용해도 충분하므로 양 조절에 유의할 것.

티 안나는 보정, 끈적임 없는 사용감으로 결점은 커버하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톤 연출. 꽃을든남자 에너지 팩토리 맨즈밤, 23,000원.



스킨, 로션, 에센스를 하나로 올인원 로션

세수하는 것도 귀찮은 중년 남성들을 위한 희소식. 스킨, 로션, 에센스를 따로 바를 필요 없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올인원 로션 하나면 기초 케어는 끝이다.

블랙커민 추출물로 남성피부의 무너진 밸런스를 회복시켜주고, 빠른 흡수력으로 진정, 보습, 미백, 탄력 강화 효능을 한 번에.

오워 포맨 올인원 파워 트리트먼트, 75,000원.

내 피부에 젊음을 안티에이징

남성은 피부가 여성에 비해 훨씬 두껍기 때문에 주름은 천천히 생기지만, 한번 생긴 주름은 깊게 파여 쉽게 가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맞는 일반적인 스킨케어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남성용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핵심 피부단백질 5가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름 부위를 확실하게 관리하며, 시트러스 아로마틱 향취가 기분까지 상쾌하게. 엔프라니 올모 V 퍼펙션. 토너 30,000원 / 에멀전 34,000원.



ENPRANI HOMME TRUE CHANGE

V-PERFECTION Skin Care Special Set

Q & A

Q 하루 종일 번들거리는 피부. 피지 예방은 어떻게 하나?

A 남성 피부는 여성 피부보다 더 피지 분비가 활발하므로, 여성보다 피지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다. 피지 분비 예방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세안법을 바꾸는 것. 이마와 코를 중심으로 세안하되, 저녁에 한 번은 꼭 폼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광대뼈를 중심으로 둥글게 문지르며, 얼굴을 비비지 말고 조심스럽게 헹궈낸다.

Q 각질관리, 꼭 해야 하나?

A 각종 야외활동으로 유분은 많이 분비되고 수분은 부족하게 되어 생기는 각질은 모공을 막아 피지와 엉키면서 피부 트러블을 만든다. 본인 피부에 맞는 보습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각질을 가라앉힐 수 있지만, 1~2주에 한 번씩 각질제거제를 사용하면 더 좋다. 만약 각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아야 한다.

Q 햇볕에 새까맣게 탄 피부를 되돌리는 방법은?

A 우선 천연팩으로 피부에 남은 열을 진정시키고, 오이나 감자를 얇게 썰어 탄 부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그 후 필링젤을 이용하여 피부 위에 있는 각질을 밀어줌으로써 원래 피부로 되돌아갈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탄 피부를 되돌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Q 손에 묻은 기름때, 확실히 제거하는 방법은?

A 기계나 자동차 부품을 만진 후 묻은 기름때를 잘 제거하지 않으면 피부의 호흡을 방해해 심하면 피부질환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 비누로 손을 씻은 후 손에 설탕을 묻혀 비비면 감쪽같이 기름때가 제거된다. 기름때가 묻을 일이 잦다면 핸드클러너 같은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바람을 타고 가을 하늘을 날다

전주공장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이선택 사원과 이대운 사원의 패러글라이딩 체험기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그 드높은 가을 하늘로 겁 없이 날아든 두 남자가 있다. 바로 전주공장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의 이선택 사원과 이대운 사원. 젊은 피디운 패기로 선뜻 도전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가을 바람과 함께해 더욱 짜릿하다.

바람과 하나가 되는 시간, 패러글라이딩 체험

패러글라이딩은 사실 흔히 접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은 아니다.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가하는 문제를 떠나서 일단 바람과 날씨의 조건이 맞아야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 레저에 관심은 많았지만 패러글라이딩 경험은 없던 이선택 사원과 이대운 사원. 바람과 하나가 되는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 세플러의 두 젊은이는 생소한 패러글라이딩 영역에도 당찬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주공장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이선택 사원

'하늘을 나는 기분'을 실제로 느껴보니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팔에 힘이 들어갔던 것이 아쉬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단짝 동료와 함께라서 더 즐거운 도전

이선택 사원과 이대운 사원은 전주공장 내에서 같은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소속이다. 휠베어링(W/B)연삭조에서 허브(HUB)베어링을 연삭, 생산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이대운 사원은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이선택 사원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선택 사원은 이대운 사원과는 다르게 휠베어링(W/B)조립조에서 허브(HUB)베어링을 조립, 생산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대운 사원이 평소 많이 의지하는 형이자 직장동료라고.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올라간 경각산 340m지점에서, 두 사원은 빨리 새가 날 때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며 마주 보고 웃었다.

두 남자, 날아오르다!

패러글라이딩을 해보기는커녕 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라는 두 사람. 하지만 장비 착용을 마친 후 비행만 앞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도 기대감이 가득했다. 이대운 사원이 먼저 도전했다. 강사의 지시에 맞추어 몇 걸음 뛰는가 싶더니, 곧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선택 사원 역시 날아오르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다. 가을이 찾아온 모악산과 구이저수지의 풍경을 발밑에 펼쳐놓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새처럼, 바람처럼 날았다.

패기 있는 두 사람의 도전에 날씨와 바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양이었다. 날씨는 너무 덥지도 쌀쌀하지도 않았고, 바람은 북서풍으로 적당히 불어왔다. 바람이 좋지 않으면 땅으로 착륙해야하지만 이선택 사원과 이대운 사원은 운 좋게도 다시 이륙장에 착륙을 하는 탑랜딩(Top Landing)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감상보다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준 세플러코리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먼저 꺼낸 두 사람. 무서웠을 법도 한 비행을 멋지게 끝낸 두 사람에게 박수를 보낸다.

전주공장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이대운 사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어서 더욱 도전하고 싶었던 패러글라이딩이었습니다. 상상과는 달리 타는 내내 편안한 느낌이었고, 놀이기구와는 다른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친구되기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

〈아빠 어디가〉 열풍으로, 아빠의 역할이 과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것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아이와 친구처럼 놀아주는 것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투자이며,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지 어려워하는 아빠들이 많다.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편이 되는 지름길, 아이와 '절친'이 되는 방법을 공개한다.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 '놀이주기'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부모의 재력이나 학력이 자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연구결과,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 수준도 높기는 했지만, 재력과 학력 수준 둘 다 자녀의 성공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다만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루에 30분씩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영향은 자녀가 만 42세가 될 때까지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아버지와 친구가 되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뒹굴며 놀았던 자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



아버지와 친구가 된 아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버지와 어울려 노는 것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아버지와 어려서부터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할 때 좀 더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해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낸다. 이런 아이가 자라서 직장인이 되면, 회사가 잘 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어려운 고비를 마주했을 때에도 상사와 힘을 모아 잘 극복해낸다.

또한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낸 아이들은 어른을 존중하고 따르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직장에서 살펴봐도, 상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잘 하는 직원들은 대개 아버지와 사이가 좋다. 이런 직원들은 상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유능한 사원으로 보일 것이다.

어떻게 놀아주어야 할까?

아이와 놀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TV나 컴퓨터처럼 부모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은 모두 끄고 아이에게만 집중해보자. 놀이가 끝난 뒤에 간식을 먹는 것은 좋지만, 먹는 시간을 놀이 시간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이 좋다. 자녀가 어린 아이라면 가급적 신체활동을 통해서 놀아준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보드게임과 같은 게임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게임의 규칙을 자녀에게 설명하게 하고, 게임을 하면서 자녀에게 배우면 된다. 아이들은 인형놀이를 할 때 인형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딸아이를 가진 아버지들에게는 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떤 놀이를 하던 놀이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지키는 것이 좋다. 혹 주중에 바빠서 놀아줄 수 없다면 주말을 이용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놀이주기, 평범한 소시민 아빠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

아이들에게 놀이는 인생을 배우고 경험하는 장이다. 놀이의 규칙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이해하고, 놀이의 즐거움을 통해 열정적인 삶을 배우며, 친밀감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를 통해 친구가 되어준다면 아이는 아버지의 삶과 인생철학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한 가치를 만들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많은 돈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도 이렇게 자녀와 하루 30분 놀아주는 것으로 충분히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와 놀아주고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Tip.



❗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아줬는데도, 아이가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 안되면 화를 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 자녀를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면 자녀는 집에서 자신이 대장이 된다. 자녀와 놀아주면서 자녀가 뭐든지 제 맘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담배나 술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좋지 않은데, 자녀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모의 통제와 지시수준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우리 아이는 놀아주려고 해도 주저하고 눈치를 살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 보통 아버지의 훈육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가 많다. 훈육을 할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심하게 내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살피게 된다. 훈육의 목표가 자녀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정해진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해한 뒤에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사춘기 전에는 부모와 잘 놀았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를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할까?

Ⓐ 자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로만 보이기 때문에 자녀는 거부감을 갖게 된다. 자녀가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자녀는 자신이 부모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부모와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게 된다.

연금의 쌍두마차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VS 종신보험

100세 시대, 연금은 필수다.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안 되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 시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더 유리한 연금은 어떤 것일까?

알찬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원리금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다만 납입기간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70세 이전에는 5.5%, 70세 이후부터 4.4%, 80세 이후부터 3.3%가 적용된다. 즉 연금을 늦게 수령할수록 연금소득세를 적게 낸다. 또한 생명보험사에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최장 2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의무납입이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한다.

연금저축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장기투자에 가장 적합한 보험사의 연금저축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보험, 든든한 비과세 노후준비

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그 어떤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고액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연금보험도 종류가 많다. 변액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이다. 변액연금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변하는 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수익금을 연금으로 되돌려 준다. 수익금이 많아지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많아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액연금보험들은 납입기간 이후까지 유지할 경우 원금의 100% 혹은 200%를 무조건 보증하기도 한다. 납입보험료가 적은 투자자라면 변액연금보험 중에서도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투자시장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한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은행상품처럼 안정적으로 연금액을 불리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납입한 원금을 복리로 굴린다. 원금손실 우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수익률은 변액연금보험보다 낮을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일시에 목돈을 넣고 익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이지만 연금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투자자산을 어떻게 굴리는가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변액형과 공시이율형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은 어떤 연금일까?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 것인지는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30대까지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40대 이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투자자는 연금보험이 적합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변경될 방침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공제액이 같다.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 연금저축보다 비과세 연금보험이 더 매력적이다. 반면 30대까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다면 세액공제로 변경된다고 해도 연금저축의 매력이 크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저축부터 가입한 후 여유가 있다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연금저축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보험사에서 가입하던 상품 구조가 거의 같다. 가장 편리한 곳에서 가입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각사마다 사업비는 물론 보장범위 투자 내용이 상이하다. 따라서 연금보험은 반드시 3명 이상의 전문가들과 상담한 후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럼, 종신보험은?

특별한 사유(자살 등)를 제외한 사고나 병환에 의한 사망에 대해서는 종류와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과거에는 80세까지 보장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100세 보장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다.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상속수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연금보험 VS 종신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인 반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양가족을 위한 것이다. 고로 평균수명이 높은 여성들에게는 종신보험보다 더 저렴하면서 오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보험 가입이 유리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인 남성이라면 종신보험을 들어놓아야 만일의 상황에서 부양가족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종신보험은 언젠가 한번은 꼭 수령을 할 수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및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보험료 대비 비효율적일 수 있다.



To Communicate

이 한장의 사진

- 창원공장 3PU 단조팀 정인주 주임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로 셰플러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나이가 50줄에 접어들면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군요. 지난 6월 어느 날 우리 부부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울릉도를 방문해 최고봉인 성인봉에도 오르고, 1년에 약 3만 명 정도만 밟을 수 있다는 독도까지..... 정말 지금도 독도의 갈매기가 눈에 아른거리는 것 같군요. 1박 2일 일정이라 빠듯하기는 했지만 정말 알차고 보람된 여행이었습니다. 참고로 울릉도, 독도 여행은 날씨가 맑아야 좋으니 5월에서 6월 중순까지, 9월 중순에서 10월까지가 여행하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떠나보세요.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한강 환경정화 활동

푸른 사회를 위해, 푸른 자연을 위해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의 이름인 ‘EVERGREEN’은 상록수, 즉 ‘늘 푸른 나무’라는 뜻이다. 이 이름처럼 사회와 늘 푸르게 함께하기 위해 다각화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이번에는 자연의 푸름을 지키는 데에도 일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잠실한강공원에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모인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푸른 사회와 초록 지구를 만드는 활동

여름의 끝자락에 선 8월 31일, 세플러코리아 대학생봉사단 ‘EVERGREEN’의 단원들은 내리쬐는 햇살을 피해 오후 3시 송파구 신천역에 모였다.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은 ‘늘 푸른 나무’를 뜻하는 이름처럼 푸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봉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송파구 소재의 지적장애인 작업장을 찾아 장애우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던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이날은 봉사단원들이 모두 함께 한강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회는 물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있는 지구의 푸름까지 생각하는 진정한 EVERGREEN이다.



푸른 자연을 지키기 위한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의 땀방울이 값있다.

빗방울도 막을 수 없는 ‘EVERGREEN’의 열의

13명의 참가자들은 각자 장갑을 착용하고 한 손에는 쓰레기봉투, 한 손에는 집게를 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들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2개조로 나누어 잠실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슬보슬 내리는 비에 황급히 비를 피했다. 그러나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 맘먹고 나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참가자들. 비가 계속 내리더라도 봉사 활동은 진행하겠다는 결의에 찬 마음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이내 비가 그치고 오후의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잠실한강공원

비도 그쳤으니, 드디어 본격적인 정화활동의 시작.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은 각각의 조로 무리 지어 다니며 공원 내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기로 했다. 공원 입구로 들어서니 길 곳곳에 먹다 버린 과자나 담배꽂초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공원에 놀러온 사람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뿌리고 간 각종 전단지들도 여기저기 버려져 공원경관을 해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쌓이는 작은 쓰레기들이 결국 자연을 크게 아프게 한다는 생각에, 참가자들은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잠실한강공원 입구를 기점으로 반대편으로 흩어져 일대의 풀밭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로 한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의 두 팀. 벤치에 앉아 음식을 먹고 옆에 쓰레기들을 쌓아두었던 사람들도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 참가자들을 보며 짐짓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얼른 쓰레기통으로 가서 쓰레기를 버렸고, 주말을 맞아 공원에 놀러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도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것을 함께 도와주었다. 푸른 숲, 맑은 공기를 위한 ‘EVERGREEN’의 노력이 단순히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기적을 보인 것이다.



쓰레기 없는 자연, 느낌 아니까~!

한 시간 가량 쓰레기를 줍고 다시 모인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각자가 수거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려고 보니, 누군진 몰라도 진흙 속에 파묻혀있던 오래된 페트병과 비닐 조각들까지 담아왔다. 열심히 땅을 파냈을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주우려 노력한 그 행동이 기특하기도 하여 참가자들 모두 잠시 웃었다. 삼삼오오 분리수거장에 모여 쓰레기들을 정리해 버리고 난 뒤에야, 오늘의 환경정화 활동은 끝이 났다. 활동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훨씬 깨끗해진 잠실한강공원의 모습을 보며 참가자들은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참가자들.

평소 잔디밭에 앉아 친구들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만 했던 이곳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쉼터가 되어주는 모든 자연환경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지금까지 자신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적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봉사활동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EVERGREEN'

한 해의 결실이 열리는 가을.

각종 햇곡식과 햇과일로 입도 즐겁고,

빨갛게 노랗게 수놓이는 풍경으로 마음도 풍요로운 계절이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그 풍요로움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

세플러코리아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11명과

세플러코리아 직원 5명은 풍성한 가을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후원물품 전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관 스님과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노인복지의 중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9월 28일, 늦잠이라도 늘어지게 자고 싶은 주말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은 후원물품 전달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모였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인 정관 스님과 이승연 사회복지사가 활동에 앞서 대학생 봉사단에게 감사의 인사와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번 기회로 독거노인의 삶은 어떠한지를 보고 느껴서 앞으로 계속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는 정관 스님의 말씀과 그들의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과 고독감, 외로움을 알아달라는 이승연 사회복지사의 당부사항에, 대학생 봉사단들은 느끼는 것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EVERGREEN'의 정성

오늘 대학생 봉사단이 방문할 어르신은 5명. 40년 이상을 홀로 지내고 계시거나, 중풍, 치매 등을 앓고 계시거나, 경제적 문제로 여관방을 전전하며 생활하시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었다. 대학생 봉사단은 봉사일정을 전해들은 뒤 한 어르신에 이불 한 채, 쌀 한 포대, 라면 한 상자, 김 한 상자, 껏감 한 상자, 사과 5개씩을 전달하기로 하고, 후원물품을 나르러 복지관 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무실로 향했다. 후원물품을 받고 행복해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힘이 나는지, 무거운 쌀 포대도 깃털처럼 가볍게 나르는 참가자들. 혹 떨어뜨릴까, 소중한 후원물품을 조심조심 이고 진 대학생 봉사단은 방문할 어르신에 따라 조를 나누어 차로 이동했다.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쁜 학생들이 찾아오니 마당 한가득 꽃이 핀 것 같다는 어르신

후원물품만큼 큰 기쁨을 전달한 말벗 되어드리기

본격적으로 후원물품 전달에 나선 대학생 봉사단. 주소지만 보고 처음 와본 동네에서 어르신 댁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가을비마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각종 후원물품을 들고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는 것이 피곤했을 법도 한데, 마침내 어르신들을 만난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고생의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집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부터 식사와 잠자리까지 걱정하는 그들의 고운 마음씨가 마냥 고마우신지, 어르신들은 "이렇게 손주 같은 학생들이 찾아와 선물을 잔뜩 주고 가니 나는 이미 부자"라며 평소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덕담들을 아낌없이 해주셨다. 더 필요하신 것이 있는 참가자들의 물음에 자기가 이렇게 후원물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대학생 봉사단을 만난 자신은 행운아라는 한 어르신. 참가자들은 오히려 어르신을 뵈게 되어 저희가 더 행운아라며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다. 가져온 음식들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시라는 작별인사를 남기고, 이날의 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나눔의 즐거움과 약간의 아쉬움

모든 활동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물품을 전달하거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이외에 청소, 빨래라도 더 해드리고 나올 걸 그랬다며 뿌듯함보다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얼마나 반가우셨는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 보였으며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절절히 느꼈다고.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독거노인 후원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 싶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후원물품을 받으신 한 어르신의 덕담처럼 '앞으로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날' 세플러코리아와 '승승장구해서 대한민국의 본보기가 될'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후원물품을 받고 함박웃음을 지으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는 'EVERGREEN' 대학생 봉사단

Tip.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구청이 설립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사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종로구에 있는 유일한 노인복지관이다. 7,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여러 사회복지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재가복지사업, 건강지원사업, 사회교육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복지활동을 진행 중이다.

- www.jongnonoin.or.kr
- 후원 : 우리은행 1005-601-674413 종로노인종합복지관

Interview +one

조정현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평소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여 엄마 같다는 말을 듣는 저는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달하고 싶어 'EVERGREEN'의 일원이 되었는데, 저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반겨주시며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어 기분이 좋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고 고마워해주는 이분들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세플러와 함께 성장할 젊은 인재들



▲ 평소 세플러 그룹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사제제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플러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 동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회사와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 품질과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주공장을 세플러 그룹 내에서 가장 생산성 높은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 입사 전부터 세플러코리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어학연수 기간에 우연히 지원서를 넣어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관심 있던 회사에 입사한 만큼 최선을 다해 전주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플러코리아에 뉴페이스가 떴다.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힌 젊은이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세플러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입사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회사와 함께 고군분투할 6명의 신입사원들을 소개한다.



▲ 아직은 업무에 있어서 서툰고 미숙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생산3팀의 실력을 대표할 수 있는 활발한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베어링 마스터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파이팅!

▲ 교수님, 선배님들을 통해 세플러가 좋은 회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입사한 만큼 무슨 일이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처리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회사인 세플러코리아에 졸업과 동시에 지원을 하여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된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初心不忘!

연삭 설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획득



▲ KEG65

지난 7월, 연구소 전용기개발팀에서 제작하는 연삭설비가 처음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고시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획득하였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2013년 3월 1일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당사에서 생산하는 연삭설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게 되어 1차적으로 스트리트 롤러 베어링(STRB) 3개 라인 증설 대상 설비부터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번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획득은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나경범 부장(수석연구원)의 주도하에서 1개월 이상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성과로 당사 설비로서는 처음 증명서를 획득한 것이다.

이번 인증을 위해 각 설비별 담당자와 연계하여 자료수집, 테스트 등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외부 기관 인증 및 해당 국가기관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대외 진행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이뤄낸 성과이다.



▲ KIG150

▲ KRG120



금번에 인증을 획득한 대상 품목은 3TYPE 시리즈로 KEG시리즈(외경연삭기) 2종(KEG-65, KEG-150), KIG시리즈(내경연삭기) 2종(KIG-150, KIG-150G), KRG시리즈(큰턱연삭기) 2종(KRG-120, KRG-140)에 대한 것이다.

이번 인증의 핵심사항은 설비에 대한 안전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설비 운용에 따른 기존의 안전사고를 보다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자동안전화 시스템에 대한 국가 인증이다.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세플러코리아의 설비는 안전을 위주로 제작되어 왔다. 하지만 금번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획득을 통해 제작 중인 설비가 인증을 받음으로서 좀 더 안전한 설비가 직원들에게 공급되고, 또한 사용하는 직원들이 제작 중인 설비의 안정성에 대해 보다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스트리트 롤러 베어링의 롤러 생산 설비 및 G1공정의 센터레스 연삭설비에 대해서도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획득할 예정이며, 신규로 개발되는 모든 연삭설비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획득할 계획이다.



▲ KIG65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Interview +one
연구소 전용기개발팀 나경범 부장(수석연구원)



올해 3월 1일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확대 고시 이후,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사항이지만 우리 회사라면 당연히 증명서를 획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하나하나 목표를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총 39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빠짐없이 만족시키고 해당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주변 분들의 격려 속에 무사히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설비에 대해서도 착실히 준비하여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서울사무소 · 산업부문 테크니컬 데이



7월 2일, 창원 호텔에서 산업부문 테크니컬 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세플러의 산업부문 관련 생산품을 현재 구매하고 있는 고객들과 잠재고객들에게 관련 기술과 생산품을 소개함으로써 세플러의 기술력 및 생산능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향후 세플러코리아는 이와 같은 행사를 더 갖고 고객들에게 당사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서울사무소 · 고장 분석과 마찰 및 윤활, 베어링 디자인 브리핑 진행(Failure Analysis Tribology / Lubrication Bearings' Design Brief)



7월 5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창원 제품기술팀 연구원들과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김민환 책임연구원(고장 분석), 김상근 수석연구원(마찰 및 윤활), 차철한 수석연구원(베어링 디자인)이 강사로 초빙된 본 교육은 영업 부서원들이 주로 참석하였고, 영업 외에도 베어링 분석, 윤활 및 설계 등의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서울사무소 · 원어민 영어강사 프로그램 실시

그룹 및 AP 내 영어 사용빈도 증가로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영어와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고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시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7월 중순부터 원어민 영어강사 프로그램(Native English Tutor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사팀 주관 하에 1:1 코칭, 그룹 회화, 스크린 회화, 영어 헬프 데스크로 운영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세플러+원> 전사게시판에서 참고 가능하다.

서울사무소 · 축구 동호회 모임



8월 21일, 축구 동호회의 3분기 모임이 진행되었다. 서울사무소에서 멀지 않은 용산 아이파크몰 실내 풋살장에 모여 함께 2시간가량 축구 경기를 즐겼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날의 모임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사무소 · 베어링 기술 세미나 개최



전주공장에서 GS칼텍스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베어링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세플러 생산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초대하여 베어링 기초 교육 및 베어링 파손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이었지만 세플러코리아는 하나의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서울사무소 · 타운홀 미팅 개최



제15회 세플러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미팅의 일환으로 서울사무소 지원부문 사무실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AP 인더스트리얼 부문 김용진 사장이 프리젠토로 나서 현재 그룹의 재무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컨시퀀트 글로벌(Konsequent Global)에 대한 설명 및 AP 지역 내 국가의 조직 개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서울사무소 · 대학생 봉사단과 장애우들이 함께하는 박물관 나들이



6월 29일,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은 성동구 소재의 보호작업장에서 생활하는 장애우 30여 명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다.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며 장애우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인종차 차별, 전시품 찾기 등 다양한 미션도 함께 수행했다.

서울사무소 · 등산 동호회 모임



8월 24일, 늘푸른 산악회 회원들의 청계산 등반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여느 명산 못지않은 숲길과 계곡에서 산림욕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모임은 남부 직남영업팀 권오경 팀장의 참석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사무소 · 제 15회 세플러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미팅 개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 미팅이 열렸다. 이번 미팅에는 아시아퍼시픽 사장인 Mr. Bauer를 포함한 아시아퍼시픽 임원들과 김재현 사장을 포함한 세플러코리아의 임원들이 모여 한국 전반의 비즈니스 현황 및 코리아 컨셉트2020의 진행 사항과 2015년부터 새로이 조직될 뉴 에이피(New AP)의 설립 계획과 금번 7월 한국에 신규로 생긴 글로벌 키 어카운트(Key account)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산 · 사출라인 프로세스 비전 워크숍



7월 22일부터 5일간 사출라인 프로세스 비전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 코디네이터는 본사 부품 MOVE 매니저인 Mr. Wamst에 의해 진행 되었으며, 독일 본사의 사출 및 TMM과 관련하여 Mr. Holdschuh, Mr. Schwarz와 Mr. Klingert가 참석하였다. 안산공장에서는 생산팀, 공정기술팀, 공장운영실, 설비보전팀, MOVE 팀이 참석하여 벨트 및 체인(Blet & Chain), 스트러트(Strut) 베어링, 래디얼 니들 롤러(Radial Needle Roller) 베어링 등 2019년까지의 생산 계획에 따른 VSD(Value Stream Design) 및 Green Field Layout 등에 관한 Process Vision을 완성하였다.

안산 · 2013년 상반기 6시그마 완료보고회



7월 18일, MOVE day 행사기간 6시그마 완료보고회를 실시하였다. 품질보증팀, 생산팀, 공정기술팀, 설비보전팀과 공장운영실 총 5개 팀이 참가하여 2013년 상반기 6시그마 활동에 대해 발표 하였다. 우수상은 품질보증팀의 변영관 부장이 발표한 "ASEH 내경 양품율 향상"이 선정되었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양품율을 8% 이상 올렸으며 유형효과로 약 9천 6백 만 원 정도의 품질 비용을 줄인 결과를 얻었다.

전주 · 정기 봉사활동 실시



6월 22일과 8월 24일에 설비보전팀과 품질보증팀 직원 및 가족이 임마누엘 동산을 방문하여 하지감자 수확, 집안 청소 및 목욕 봉사 그리고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27일에는 음악 동호회 회원 및 가족이 소화진달래집을 방문하여 이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음악과 노래를 선물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필요한 물품도 전달하였다.

전주 · 환경안전 Festival

7월 19일, 대교육장에서 팀장, 계장, 주임, 담당을 대상으로 5~6월 환경안전보고 실적 보고, 특별 개선사례 발표 및 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전주공장장은 환경안전팀에 포상금 10만 원, 개선사례 발표 우수상 7만 원, 장려상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절기 전력 절감 활동을 강조 하였다.

전주 · 전화 응대 방법 안내 및 Monitoring 실시

9월 4일부터 7일간 고객중심 마인드 형성 및 회사 이미지 제고와 소속감 고취를 위해 전화 응대 방법을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세플러코리아 ○○팀 ○○입니다"라는 인사말을 통해 CS중대와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요청하였으며, 평가 후 오는 10월 월례 조회 시 최우수 팀을 선정하여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 · 일반직 기숙사 재배치 및 House Open Day 실시

8월 29일, 일반직 기숙사 재배치 및 House Open Day를 실시하여 생활 모습을 공개하고, 선배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일체감 조성시간을 가져 신입사원의 조기적응을 유도하였다. 다 같이 기숙사를 둘러보고 저녁식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으며 가장 깨끗한 집을 선정하여 2가구에 과일을 한 박스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창원 · 창원공장 3/4분기 환경안전 점검

창원공장 환경안전팀에서는 2013년 9월 6일 상주 협력사에 대한 환경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주 협력사와 근로자들의 환경안전 의식을 제고시키고 정기적인 환경안전 점검으로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지적된 내용의 사례 전파를 통해 상호협력적 환경안전 상태의 유지를 위한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창원 · 창원공장 만도 CKD 정기점검 실시

창원공장 품질보증팀에서는 2013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만도 CKD 정기점검을 받았다.

본 정기점검은 만도와 진행중인 양산품에 대한 공정감사로 담당부서와 생산라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본 점검에서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으며, 주관 부서에서는 진행중인 양산품목에 대한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창원 · 현대파워텍 KAPPA CVT 점검

지난 9월 3일, 창원공장은 현대파워텍의 요청으로 KAPPA CVT 점검을 받았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KAPPA CVT 공급품의 물량증가에 따른 설비 및 생산 능력, 품질 확보방안 등에 대한 점검이었으며 현재 생산중인 테이퍼 롤러 베어링 2종, 실린더리얼 롤러 베어링 1종, 딥 그루브 볼 베어링 2종 및 롤러 생산라인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서 제출 및 이행 여부 평가도 함께 진행되었다.

창원 · 테이퍼 롤러 베어링 MOVE 매니지먼트 워크숍



9월 23일부터 5일간 창원공장 연수실에서 TRB MOVE 매니지먼트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금번 워크숍에는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AP에서 온 23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원종우 창원공장장, 정명호 2PU장 및 관련 PU장, 창원공장 운영실, 연구소 전용기 개발팀, MOVE 사무국, 공정개선팀, 남부 물류센터, 전주 및 안산공장의 관련 인원 26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VSD, 공급업체 통합, 제조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VSD팀은 효율적인 생산계획 및 현장 재고 감소를 위한 FIFO운영 아이디어 도출, 공급업체 통합 팀은 조립부품(롤러 및 케이지)의 효율적인 현장 공급을 위한 터거루트 설계, 제조팀은 T-25, 26라인의 설비 종합 효율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창원 · 야구동아리 SKB 창원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창원공장 야구동아리 SKB(Schaeffler Korea Baseball)가 2013년 창원리그 중 3부 2위를 차지하여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다. 승부는 총 12개 팀이 리그로 경합하여 상위 3개의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SKB는 11경기 중 10경기에서 8승 2패의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여 잔여 1게임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였다. 개인 기록에서는 연구소 장수권 사원이 타율과 홈런부문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으며, 투수 부문에서는 창원공장 기대환 차장이 4승으로 공동 1위에 랭크 되어있다

연구소 · 독일 인턴 사원과의 즐거운 낚시 경험



9월 14일, 세플러그룹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7월부터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독일 인턴사원 Andre, Phillip, Lukas와 연구소의 김종우 부장 등 6명은 주말을 이용해 경남 통영 목지로 바다 낚시를 떠났다. 잡은 생선으로 만든 생선구이로 신선한 바다의 맛도 느껴보며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연구소 · BearingX 교육 실시



9월 11일부터 3일간 제품기술팀, 섹터사업부, 품질보증팀 소속의 새로운 BearinX 사용자 12명을 대상으로 전주연수원에서 연구소 제품기술팀 강원환 선임 연구원이 BearinX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교육 참가자들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어플리케이션 능력 확보를 통한 제품 개발 및 기술 인력에 대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구소 · 사시/IB 설계/어플리케이션 파트 워크숍



7월 5일, 사시/IB 설계/어플리케이션 파트 13명은 퇴근 후 경남 합천에 모여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에 관한 것 이외에도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를 편하게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엄마에게



오랜만에 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되네요. 엄마 인생의 반이 세플러 안산과 함께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애정과 인간관계를 그곳에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어쩔 엄마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도 엄마는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이 편지가 엄마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담아볼게요.

내가 7살, 그러니깐 초등학교 입학 할 때쯤 인 것 같네요. 동생과 내가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나이인 걸 잘 알고 있는 엄마였기에 근심 반 기대 반인 무거운 표정으로 첫 출근을 하시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라요. 그 즈음 시골 갔다 올라오는 길에 본 세플러 물류창고, “진이야 저기 봐, 저것도 엄마네 회사란다.” 엄마의 말씀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일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큰 회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남들보다 더 잘살기 위해서가 아닌, 남들만큼은 살아야하지 않겠냐는 의지에서 세플러 안산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지만, 그 눈물 섞인 노력에 대해 보답이라도 하듯 이제는 우리 가족이 편안히 꿈꿀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가 생겨났고 장학금 제도라는 복리후생 덕분에 대학을 졸업해 이제 저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의 대학생활까지…….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세플러가 이루어준 것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가장 아님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아무리 울어도 듣지 못하고 주무시는 남편의 모습에 더 서럽고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우리들이 볼까 몰래 우시던 엄마의 모습, 이제는 습관처럼 찾아오는 잔병 들까지도……. 왜 그걸 보면서도 엄마 편에 서서 힘이 되어주지 못했나 싶어 오늘따라 마음이 더 아프네요.

밤새 힘들어 하시면서도 다음날 어김없이 출근하시던 엄마의 모습에 당연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거기에 10년이 넘도록 현장직으로 불량선별 등의 다양한 일들을 해오면서, 엄마도 사람인지라 익숙해짐에서 오는 나태함을 꾸짖기라도 하듯 때때로 찾아오는 실수를 하면서 조금 더 긴장하곤 했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발판삼아 더 나아진 모습의 엄마가 되었죠. 신입들에게 당당하게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탄탄한 실력으로 무장한 세플러 안산의 왕언니 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저도 엄마 직장동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고, 그렇게 잦은 만남을 갖다보니 저 역시도 세플러 안산의 가족처럼 느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제가 참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초등학교 시절, 겨울에 ‘가족과 함께 스키장가기’라는 활동이 있었죠. 처음 가보는 스키장에 설렘을 한가득 안고 쫓아가던 버스 안, 거기에 관광버스 춤을 멋지게 선보여 그날 세플러 안산의 스타가 돼버린 제가 있었네요. 대학생 뎀 방학을 이용해 세플러 안산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두 가지 메뉴로 나누어져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사내식당에서 사람들과 어울린 식사시간을 갖기도 했지요.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밥맛은 꿀맛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는 수다도 떨면서 최대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즐기려고 노력했던 때가 엇그제 같네요.

이젠 엄마도 ‘이것이 바로 즐거운 회사생활’이라고 보여주는듯 볼링 동호회, 체육대회, WORKSHOP, 사내 교육 등에 참여하고 돌아오시죠. 덕분에 제가 맡은 집안일들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긴 했지만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일깨워줄 때면 엄마가 멋져 보이고, 엄마에게서 배우는 점들이 너무나도 많아 감사해요.

그러한 결과일까요. 사보에 볼링 동호회 주제로 엄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역사적인 2010년 7월이 되었던 것 같네요. 집으로 날아온 사보를 우리 앞에 자랑스럽게 꺼내놓으시며 사진이 잘 나왔다고 웃으셨죠. 엄마의 숨은 실력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때론 잘 안되신다며 불평도 하셨던 것 같은데, 사보를 읽으며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던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를 볼링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네요. 초보의 실력에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수의 실력으로 또 한번 도약하신 거죠. 그리고 네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인터뷰 내용들을 읽으면서 놀렷더니 팬스레 축스러워 하시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집엔 웃음꽃이 한 번 더 피었죠.

이렇게 엄마와 우리 가족에게서 세플러 안산의 자리가 점점 커져 가네요. 가정에서만 필요한 사람이 아닌, 직장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엄마.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보다는 ‘멋진 직장인’이라는 단어로 불러주고 싶어요. 세플러 안산에 대한 엄마의 강인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앞으로도 엄마가 사회에서 당당한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엄마로서, 친구로서, 그렇게…….

이제는 저도 엄마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게요.
엄마 사랑해요 ♥

세플러코리아의 더 나은 사보를 위한 협력자로

서울사무소

2013.06

정보시스템팀
고봉문 | 9일
모친상

경영지원팀
이종우 | 18일
장모 회갑

2013.07

사업관리팀
최종재 | 5일
부친 회갑

협력사 품질개선팀
임효준 | 13일
친조부상

풍력 섹터
박준성 | 15일
장모 회갑

사업관리팀
최종재 | 17일
친조모상

재경팀
김태안 | 20일
모친 회갑

2013.08

중공업설비센터
김광현 | 5일
장인 회갑

산업기계센터
노경락 | 12일
부친상

글로벌영업팀
김민건 | 24일
본인 결혼



2013.09

재경팀
김육중 | 14일
본인 결혼



창원공장

2013.06

테이퍼베어링 열처리팀
최창배 | 18일
부친상

단조팀
남경원 | 30일
본인 결혼

2013.07

볼베어링 생산1팀
안형인 | 2일
장인상

업무지원팀
김승한 | 6일
자녀 결혼

품질보증팀
김용주 | 6일
자녀 결혼

테이퍼베어링 생산팀
이용식 | 8일
부친상

협력사 품질개선팀
임효준 | 13일
친조부상

볼베어링 생산3팀
변영규 | 21일
모친상

볼베어링 열처리팀
이세호 | 30일
부친 회갑

2013.08

PU2사업부
방만석 | 2일
장모 회갑

선삭팀
김영록 | 3일
형남상

선삭팀
손효섭 | 7일
본인상

볼베어링 열처리팀
김훈호 | 7일
백모상

품질보증팀
류해민 | 8일
장인상

볼베어링 생산2팀
김홍균 | 8일
장인상

품질보증팀
김용주 | 9일
장인상

협력사 품질개선팀
강성준 | 10일
본인 결혼

볼베어링 열처리팀
정성기 | 24일
본인 결혼

설비보전6팀
임종철 | 26일
장모 회갑

2013.09

선삭팀
이세욱 | 1일
모친 회갑

안산공장

2013.05

생산팀
김형찬 | 19일
조모상

2013.06

공정기술팀
김태현 | 6일
장인상

생산팀
유석 | 16일
조부상

생산팀
김민혁 | 21일
장인 회갑

생산팀
이기숙 | 22일
모친상

2013.07

생산팀
박근우 | 11일
부친 회갑

생산팀
박근우 | 27일
모친 회갑

2013.08

생산팀
김홍진 | 3일
모친상

품질보증팀
박주상 | 7일
모친 회갑

공장운영실
장판철 | 8일
모친 회갑

품질보증팀
유택권 | 12일
부친 회갑

생산팀
석정원 | 12일
장인 회갑

기술연구소
조명현 | 23일
모친 회갑

품질보증팀
유택권 | 31일
본인 결혼



전주공장

2013.07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강문관 | 19일
부친상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추병수 | 29일
모친 회갑

테이퍼/휠베어링 생산2팀
노일 | 29일
자녀 출산



연구소

2013.06

제품기술팀
이석훈 | 26일
친조모상

2013.09

제품기술팀
이영근 | 16일
장모 회갑



2013년 사보의 개편과 발맞춰
신입 사보 주재기자로 선발된
새로운 얼굴이 독자 여러분에게
힘찬 각오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소식을
보다 알차고 발 빠르게 전달할
사보 주재기자들을 소개합니다.

안산공장 설비보전팀 장대연 사원

적응기간만 지나면 그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화력이 바로 저의 무기입니다. 이 점이 주재기자로써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팀장님의 권유로 주재기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플러+원〉이 계간으로 발행되는 사보인 만큼, 사계절이라는 각각의 그림 안에 세플러코리아 직원 모두가 참여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주재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플러인 여러분! 〈세플러+원〉 참여를 통해 가끔은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 사우들과의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연구소 전용개발팀 김성진 사원

〈세플러+원〉을 즐겨 읽고 사보에 관심이 많던 차에 팀장님의 추천으로 주재기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우들을 대할에 있어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이런 성격은 사보제작에 필요한 사우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보가 더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원들의, 사원들에 의한, 사원들을 위한 사보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플러+원〉독자님들의 애독 및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